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남녀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정내·하정희*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 및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완벽주의와 자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 374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하위차원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되었을 때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의식 하위차원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의식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되었을 때 남학생은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의식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은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완벽주의, 자의식, 섭식장애행동

* 충북대학교

I. 서 론

최근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되고, 미의 기준이 서구화되면서 날씬함이 사회문화적으로 아름다움, 성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odin(1993)은 현대 사회가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여 마른 모습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의 40%, 여성의 50% 이상이 체중 때문에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동향은 자신의 건강마저 해치면서 마른 체형을 만들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로 외모 지상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Eisele, Hertsgaard와 Light(1986)는 청소년들의 81%가 정상체중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78%가 살이 더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은 엄격한 다이어트 실행이 신경성 폭식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같은 섭식장애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yle, Mitchell, & Eckert, 1981; Fairburn & Cooper, 1982). 또한 비현실적인 신체지각으로 인한 왜곡된 신체상과 신체불만족, 혹은 마른 것에 대한 욕구가 이상적인 섭식장애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이렇듯 중요한 발달과제를 성취해야 할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섭식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섭식장애를 야기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기제를 탐색하려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Cooper & Fairburn, 1986; Fairburn & Wilson, 199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Laessle, Kittl, Fichter, & Pirke, 1998; Polivy & Herman, 1985; Steiger, Lehoux, & Gauvin, 1999; Stice, Akutagawa, Gaggan, & Agras, 2000; Vitousek & Manke, 1994).

섭식장애는 심각하게 혼란된 섭식행동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심리장애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두 형태가 이에 포함된다. DSM-IV에 의하면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와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수준에 있어서는 두 장애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최소한의 정상체중 유지를 거부하기 위한 극단적인 절식을 보이는데 반하여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적인 폭식행동과 그에 따르는 부적절한 보상적 행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들이 사용

하는 부적절한 보상적 행동에는 폭식 이후에 스스로 유도하는 구토, 하제나 이노제 등의 약물사용, 혹은 매우 지나친 운동 등이 포함된다(APA, 1994). 이러한 섭식장애는 아동기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전형적 형태는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발생하며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자멸적인 장애(self-destructive disorder)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송미, 1993). 그러나 섭식장애로 치료에 의거된 14세 이하의 아동들의 수도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남성에게 섭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비율도 1/10로 작지만 이러한 집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최진숙, 1991).

섭식장애 관련 변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소, 유전적 영향, 아동기 경험, 개인의 체중 경력과 가족 체중 경력, 정신병리의 가족 경력, 성과 사회 문화적 맥락, 여성 청소년 발달(신체적 성숙, 친밀한 관계의 발달, 자기감의 발달), 다이어트, 개인적 성격 특징들, 가족적 요인, 사회·문화적요인, 대중매체의 역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러한 섭식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만과 같은 생리적인 위험요인(Cattarain & Thompson, 1994)과 극심한 다이어트와 같은 개인적 경험 요인(Stice, 2001), 부적응적 정서와 완벽주의,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는 개인적 차원과 가족내 섭식장애 환자 유무, 무관심이나 밀착 등의 특징적인 가족 상호작용 패턴 등의 가족적 차원과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차원(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특히, Leonard, Steiger와 Kao(2003)는 아동기에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낮은 자존감이나 적응적 기제에 문제를 가져서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혀내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섭식장애를 중재시키거나 매개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섭식장애 관련요인들 가운데, 개인 내적인 심리적 특성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 내적 변인인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함께 상정하여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완벽주의는 다른 정신병리와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되었을 때 자신을 평가하는 역기능적인 도식을 가지며(Shafran, Cooperdh & Fairbum, 2002), 날씬한 몸과 관련된 불가능한 기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핵심특징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자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개인차 변인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자의식을 상정하여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완벽주의는 사전적으로 ‘자신의 일에서 완벽을 향한 극도의 추구’ 또는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Merriam-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93). 완벽주의 개념을 최초로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Hamache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초기 완벽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Burns(1980)의 연구와 이론, 임상기들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기능을 가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벽주의 성향을 적응, 부적응적 기능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Blatt, 1995; Parker, 1997). Hewitt와 Flett도 1980년대에 완벽성을 단일차원으로 생각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완벽성과 우울증의 연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면서 완벽성이 3가지의 다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개념화하였다. 그 3가지 차원은 첫째, 자기지향 완벽성이며, 두 번째 차원은 타인지향 완벽성, 세 번째 차원은 사회부과 완벽성으로 이러한 구분은 행동 유형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한기연, 1993).

완벽성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은 그 하위차원이 다를 뿐 여러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Frost와 그의 동료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은 Hewitt와 Flett처럼 완벽성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하고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높은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Frost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는 6개의 하위구성요소를 갖는데, 그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에 대한 염려’로 실수를 실패로 생각하며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개인의 기준’으로 성취와 자기존중감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셋째, ‘부모의 기대’로 부모가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향을 나타내고, 넷째, ‘부모의 비난’으로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자각한다. 다섯째는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반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 의심하는 경향을 말한다. 마지막 하위구성요소는 ‘조직화’로 정리정돈, 체계화, 말끔한 것을 중요시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Blatt, 1995; Mitzman, Slade, & Dewey, 1994; Parker, 1997).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연구한 Frost 등(1993)에 입각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나누어 살펴보려한다.

완벽주의는 많은 연구들에서 불안장애, 섭식장애, 우울, 자살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 및 증상과 관련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폭식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과 완벽주의를 많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발달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이들에게 있어 식사조절과 체중감소는 그들이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약한 통제감을 보상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상선, 1994; Cooper, 1995).

선행연구에서 섭식장애는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lik, Tozzi, Anderson, Mazzeo, Aggen & Sullivan, 2003). 섭식장애자들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날씬함을 추구하는 완벽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섭식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완벽주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완벽주의가 섭식장애 발병에 선행하며 장애의 심한 정도를 특징짓고 (Halimi et al., 2000; Lilienfeld et al., 2000), 회복 후에도 지속된다고 말한다(Bastiani, Rao, Weltzin, & Kaye, 1995; Sutandar-Pinnock, Blake, Carter, Olmsted, Kaplan, 2003). 또한 Thomsen, McCoy와 Williams (2001)는 섭식장애환자들의 내재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환자들의 경험기술에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섭식장애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Hewitt, Flett, & Ediger, 1995; Joiner, Heatherton, & Keel, 1997).

한편, 자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자의식이란 개인이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은 객관적 자기자각이론을 바탕으로 주의의 초점을 자기에 두는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향을 자의식이라 명명했다. 자의식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세 차원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써 내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동기와 관련된 자기의 측면들에 주목하는 성향을 말한다. 공적자 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로 인상형성,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표현되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

다. 사회적 불안은 대체로 공적 자의식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적 자의식이 사회 불안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 불안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Fenigstein et al., 1975).

공적, 사적 자의식과 섭식장애와의 특징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riegel-Moore, Silberstein과 Rodin(1993)은 폭식증 환자와 혼란된 섭식을 가진 아주 높은 수준의 비임상적인 피험자들과 정상적인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사적, 공적 자의식과 관련하여 비교하였는데 폭식증 환자들과 섭식장애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피험자들은 정상적인 통제에 있는 사람들보다 공적 자의식에 관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집단 간의 사적 자의식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Jostes, Pook와 Florin(1999)는 사회적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신경증장애, 신경성 폭식증의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에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폭식증 환자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건강한 통제에 있는 사람에 비하여 공적 자의식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Geissner, Bauer와 Fichter(1997)에 의한 연구에서도 표준화된 자료와 비교했을 때, 공적 자의식이 거식증 환자에게 있어서 향상되어졌고, 사적 자의식은 향상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 자의식이 섭식장애자들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자살 행위 등과도 관련성이 높다(Youssef, Plancherel, Laget, Corcos, Flament, & Halfon, 2004)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의식과 섭식장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미비한 편이다.

이렇듯 자의식이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자의식은 완벽주의와도 관련이 된다. Hewitt와 Flett(1993)은 완벽주의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만성적인 자각(자의식)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사회중심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세운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높은 목표를 세운 타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므로 공적 자의식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왕미란(1995)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가

공적 자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여보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가치관의 확대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 여성의 다이어트 범람과 섭식행동의 손상을 가져오며 섭식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남성들도 근육질의 이상적인 체형을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나 바디빌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남성에게도 유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Braun, Sunday, Huang, & Halmi, 1999)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자칫 섭식행동의 장애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녀에 따른 섭식장애 관련 연구는 드문 실정인데, 이 가운데 Haase, Prapavessis와 Owens (2002)는 긍정적 완벽주의가 남성의 혼란된 섭식을 덜 하게 하였고 여성에게서는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 모두가 경향성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섭식장애와 관련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남녀 차이에 따른 섭식장애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의 여러 관련변인 중에서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섭식장애와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섭식장애의 치료개입으로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2.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3.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충청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부적절하게 설문지에 응답한 6명을 제외한 후 총 374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171명(46%), 여자는 203명(54%)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14세(SD=3.11)였으며, 전공 계열은 인문계열(55%)과 이과계열(37%)이 많았다.

2. 측정도구

1) 섭식장애 행동검사

섭식장애 행동검사는 섭식장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오숙현(1994)이 번안한 것으로, 총 3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2개의 검사로 구성되었는데, 1~26번 문항은 식이태도 검사(EAT,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el, 1979)의 40문항을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26문항의 간략형으로 제작한 식이태도 검사-26에 해당된다. 이 검사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행동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정상 체중인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섭식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이 척도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문항은 6지선다형(‘전혀 아니다’~‘항상 그렇다’)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채점방식은 각 문항에 따라 가장 심한 증상에 3점, 그다음으로 심한 증상에 2점, 1점 순으로 채점되고, 나머지는 0점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식이태도 검사(EAT-26)의 점수는 0~78점 사이에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혼란하고 심각한 섭식장애 행동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오수 등(1990)이 보고한 식이태도 검사(EAT-26)의 Cronbach's α 는 .85이다.

한편, 섭식장애 행동 검사의 27~34번 문항은 Pyle 등(198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경성 폭식증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DSM의 진단준거로 제작된 문항들을 포함한 것이다. 이 검사는 6점 척도로 점수가 커질수록 섭식행동에서 손상되어 있다는 것으

로 나타난다.

섭식장애 행동 검사(34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오숙현, 1994) 본 연구에서의 섭식장애 행동 검사의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2) 완벽주의 :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Frost 등(1990)은 완벽성을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구성개념으로 보고,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여 F-MPS(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하였다. F-MPS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rost 등(1990)의 실수에 대한 염려 등 하위차원별 Cronbach's α 는 .88, .83, .84, .84, .77, .93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Blatt, 1995; Mitzman, Slade, & Dewey, 1994; Parker, 1997).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연구한 Frost 등(1993)에 입각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진원(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고, '적응적 완벽주의'의 Cronbach's α 는 .87,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3) 자의식 척도

자의식 척도(SCS; Self-consciousness scale)는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이 제작한 것으로, 총 2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사적 자의식 10문항, 공적 자의식 7문항, 사회 불안 6문항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주일(1998)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반응 양식을 검증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1988)이 번안한 것을 이훈진, 원호택(199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훈진,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보고한 자의식 척도의 각 차원별 신뢰도 계수는 ‘사적 자의식’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공적 자의식’의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사회 불안’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의식 척도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으며, ‘사적 자의식’의 Cronbach's α 는 .77로, ‘공적 자의식’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사회 불안’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해 충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자료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였다.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인의 설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enter방식의 중다회귀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1.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

남녀별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 섭식장애 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남녀별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 섭식장애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변 인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F
	n = 203	n = 171	
1. 적응적 완벽주의	3.11(.61)	3.13(.62)	.11
2. 부적응적 완벽주의	2.68(.55)	2.78(.54)	2.97
3. 사적 자의식	3.42(.52)	3.19(.58)	16.35*
4. 공적 자의식	3.79(.54)	3.42(.80)	27.76*
5. 사회적 불안	3.01(.74)	2.86(.85)	3.44
6. 섭식장애행동	.67(.36)	.54(.28)	14.50*

* $p < .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이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섭식장애행동 점수에서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 섭식장애행동과의 상관 (남녀별)

변 인	1	2	3	4	5	6
1. 적응적 완벽주의	1.0	.36***	.58**	.54***	.10	.01
2. 부적응적 완벽주의	.40***	1.0	.34***	.35***	.55***	.31***
3. 사적 자의식	.36***	.11	1.0	.76***	.25**	.07
4. 공적 자의식	.29***	.16*	.55***	1.0	.31***	.02
5. 사회적 불안	-.18**	.18*	-.13	.11	1.0	.25**
6. 섭식장애행동	.19**	.18*	.18**	.29***	.05	1.0

* $p < .05$, ** $p < .01$, *** $p < .001$

▽ ■ 윗부분은 남학생, 아래부분은 여학생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을 살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r=.36, p < .001$), 사적 자의식($r=.58, p < .001$), 공적 자의식($r=.5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적 자의식($r=.34, p < .001$), 공적 자의식($r=.54, p < .001$), 사회적 불안($r=.55, p < .001$), 섭식장애행동($r=.3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적 자의식에서는 공적 자의식($r=.76, p < .001$), 사회적 불안($r=.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불안($r=.3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불안은 섭식장애행동($r=.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에서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을 살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r=.40, p < .001$), 사적 자의식($r=.36, p < .001$), 공적 자의식($r=.29, p < .001$), 섭식장애행동($r=.19, p < .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사회적 불안($r=.54,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공적 자의식($r=.16, p < .05$), 사회적 불안($r=.18, p < .05$), 섭식장애행동($r=.18,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적 자의식은 공적 자의식($r=.55, p < .001$), 섭식장애행동($r=.1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공적 자의식은 섭식장애행동($r=.2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에서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여학생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완벽주의와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t=4.45,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섭

섭식장애행동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지 않았고 경향성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중다회귀분석 (남녀별)

남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²
		B	Std.Error	Beta		
	적응적 완벽주의	-.05	.04	-.12	-1.52	.11**
	부적응적 완벽주의	.18	.04	.35	4.45**	
여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²
		B	Std.Error	Beta		
	적응적 완벽주의	.08	.04	.14	1.85	.05*
	부적응적 완벽주의	.08	.05	.12	1.64	

* $p < .01$, ** $p < .001$

3.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은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에서는 유의하게 예언되지 않았고 사회적 불안에서만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t=3.40$ $p < .01$). 여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은 공적 자의식($t=3.21$ $p < .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고, 사적 자의식과 사회적 불안에 의해서는 모두 유의하게 예언되지 않았고 경향성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남학생은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공적 자의식이 클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표 4>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중다회귀분석 (남녀별)

남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²
		B	Std.Error	Beta		
	사적 자의식	.06	.06	.13	-1.10	
	공적 자의식	-.06	.04	-.16	-1.40	.07*
	사회적 불안	.09	.03	.27	3.40*	
여 학 생	변 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²
		B	Std.Error	Beta		
	사적 자의식	.03	.06	.04	.47	
	공적 자의식	.18	.05	.27	3.21*	.09**
	사회적 불안	.01	.03	.03	.36	

* $p < .01$, ** $p < .001$

4. 완벽주의,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위의 <표 2>를 통해 남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과 상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여학생들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성에 따른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로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중다회귀분석 (남녀별)

남 학 생	섭식장애행동			
	변인	표준화된 B값(Beta)	t	R ²
	부적응적 완벽주의	.31	4.17**	.09
	총설명량			.09
여 학 생	섭식장애행동			
	변인	표준화된 B값(Beta)	t	R ²
	공적 자의식	.27	3.98**	.085
	부적응적 완벽주의	.13	1.98*	.018
	총설명량			.103

* $p < .05$, ** $p < .001$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나타났으며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이 변인의 설명량은 9%였다. 즉, 다른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남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표 2〉를 통해 사회적 불안과 섭식장애행동 간의 상관을 볼 수 있었지만($r=.25, p < .0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섭식장애행동에 대해 사회적 불안이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순서로 나타났고 섭식장애 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총설명량은 10%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섭식장애행동에 대해 공적 자의식은 8.5%,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2.8%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공적 자의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여학생의 섭식장애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표 2를 통해 사적 자의식, 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 간의 상관을 볼 수 있었지만($r=.18, p < .01$; $r=.19, p < .01$),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적 자의식과 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적 자의식 및 적응적 완벽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공적 자의식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모두 섭식장애행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섭식장애행동에 대해 사적 자의식과 적응적 완벽주의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자의식과 적응적 완벽주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들에서 섭식장애와 관련성을 보이는 여러 변인들 중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남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섭식장애와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섭식장애의 치료개입으로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사회적 불안과 부정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에 손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에 손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완벽주의 하위차원 즉, 적응적 완벽주의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조건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섭식행동의 손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학생은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모두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경향성만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의식의 하위차원 즉,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자의식 하위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이 섭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섭식행동에 손상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섭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학생에게는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줄여줌으로써 섭식장애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학생은 자의식 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황에서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공적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섭식장애행동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적 자의식에 관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Striegel-Moore 등 (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넷째,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적인 효과를 남녀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 2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 또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에 사회적 불안은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의 그 자체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상관이 높은 다른 변인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통하여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불안이 높으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섭식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학생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선 <표 2>의 결과를 통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사적 자의식 또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에 적응적 완벽주의와 사적 자의식은 섭식장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사적 자의식이 그 자체로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변인과 상관이 높은 다른 변인들 즉, 공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통하여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별 완벽주의, 자의식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는 물론,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대해 연구의 의의와 상담 및 교육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어져 오던 변인인 완벽주의와 자의식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들과 섭식장애행동과의 관련성을 남녀별로 살펴봄으로써,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남학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불안이 섭식장애행동과 관련되지만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자의식, 공격적 자의식과 관련성을 보였지만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공격적 자의식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나 상담자는 남학생은 그들의 섭식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인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와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여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들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섭식장애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섭식장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그에 적절한 상담의 개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자의식은 개인이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로서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자의식과 섭식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논문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자의식의 개념을 섭식장애행동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살펴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비임상적인 그룹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섭식장애행동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남녀별 변인 간 평균차이검증결과, 섭식장애행동이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이 점을 염두하여 결과해석을 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개념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 결과에 관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섭식장애행동의 변량 중에서 소량의 변량만

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섭식장애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나 기타 가족요인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라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섭식문제를 살펴본 것이므로 섭식장애행동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인 섭식장애 집단을 비롯해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신체적 급성장을 경험하는 중학생과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식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왕미란(1995). 완벽주의, 자의식 및 우울 성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숙현(1994). 여대생의 섭식장애행동과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선(1994). 여대생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전공.
- 이송미(1993). 청소년기의 섭식장애. 국민영양, 11, 11-21.
- 이주일, 민경환(1988).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의 비교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 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편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최진숙(1991). 청소년기 섭식장애. 한국의학회지, 34(11), 1179-1182.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오수, 유희정, 김창윤, 이철, 미병근, 박인호(1990). 한국인의 식이장애의 역학 및 성격특성. 정신의학, 15, 270-287.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stiani, A. M., Rao, R., Weltzin, T., & Kaye, W. H.(1995). Perfectionism in anorex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 147-152.
-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 J.(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2, 46-51.
- Blatt, S. J.(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raun, D. L., Sunday, S. R, Huang, A., & Halmi, K. A. (1999). More males seek treatment for d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

415-424.

- Bulik, C. M., Tozzi, F., Anderson, C., Mazzeo, S. E., Aggen, S., & Sullivan, P. F.(2003). The relation between eating disorders and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 366-368.
- Burns,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1.
- Cattarain, J. A. & Thompson, J. K.(1994). A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Eating Disorders*, *2*, 114-125.
- Cooper, P. J. & Fairburn, C. G.(1986). The depressive symptoms of bulimia nervos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8*, 268-274.
- Cooper, Z.(1995).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eating disorders. In K. D. Brownell & C. G. Fairburn, (Eds.),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isele, J., Hertsgaard, D., & Light, H. K.(1986). Factors related to eating disorders in young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21*, 283-290.
- Fairburn, C. G., & Cooper, P. J.(1982). Self-induced vomiting and bulimia nervosa: An undetected problem.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89*, 1153-1155.
- Fairburn, C. G., & G. Terence Wilson(1993). Binge eating: nature, assessment, and treatment, (pp.193). New York: Guilford press.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Garner, D. M., & Garfinkel, P. E.(1979). The Eating Attitude test: An index of

-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3-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1982). The Eating Attitude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 871-878.
- Geisner, E., Bauer, C., & Fichter, M. M.(1997). Videogestützte Konfrontation mit dem eigenen körperlichen Erscheinungsbild als Behandlungselement in der Therapie der Anorexia Nervosa. *Zeitschrift für Klinische Psychologie*, 26, 218-226.
- Haase, A. M., Prapavessis, H., & Owens, G. R.(2002). Perfectionism, social physique anxiety and disordered eating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elite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3), 209-222.
- Halmi, K. A., Sunday, S. R., Stober, M., Kaplan, A., Woodside, D. B., Fichler, M., Treasure, J., Berrettini, W. H., & Kaye, W. H.(2000). Perfectionism in anorexia nervosa: variation by clinical subtype, obsessiveness, and pathological eating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799-1805.
- Hamachek, D. E.(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atherton, T. F., & Baumeister, R. F.(1991). Binge 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ical Bulletin*, 110, 86-108.
- Hewitt, P. L., & Flett, G. L.(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1995). Perfectionism traits and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317-326.
- Joiner, T. E., Heatherton, T. F., & Keel, P. K.(1997). Ten year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five bulimia related indicato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133-1138.

- Jostes, A., Pook, M., & Florin, A.(1999).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 specific psychopathological fea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285-1295.
- Laessle, R. G., Kittl, S., Fichter, M. M., & Pirke, K. M.(1998).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on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7, 681-686.
- Leonard, S., Steiger, H., Kao, A.(2003). Childhood and adulthood abuse in bulimic and nonbulimic women: Prevalencies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2, 397-405.
- Lilenfeld, L. R., Stein, D., Bulik, C. M., Strober, M., Plotnicov, K., Pollice, C.(2000). Personality traits among currently eating disordered, recovered and never ill first-degree female relative of bulimic and control women. *Psychological medicine*, 30, 1399-1410.
-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1993).
Springfield, MA: Merriam Webster.
- Mitzman, S. F., Slade, P., & Dewey, M. E.(1994).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designed to measure neurotic perfectionism in the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516-520.
- Parker, W. C.(1997). An emporocal typology of perfectionism in academically talented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4, 545-562.
- Polivy, J., & Herman, C. P.(1985). Dieting and Binging: A casu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0, 193-201.
- Pyle, R. L., Mitchell, J. E., & Eckert, E. D.(1981). Bulimia: a report of 34 case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2, 60-64.
- Pyle, R. L., Mitchell, J. E., Eckert, E. D., Halvorson, P. A., Neuman, P. A., & Goff, G. M.(1983). The incidence of bulimia in freshm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 75-85.
- Rodin, J.(1993). Cultural and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weight concerns. *Abnormal of internal Medicine*, 119, 643-645.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773-791.
- Steiger, H., Lehoux, P. M., & Gauvin, L.(1999). Impulsivity, dietary control, and the urge to binge in bulimic syndr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6*, 261-274.
- Stice, E., Mazotti, L., Krebs, M., & Martin, S.(1998). Predictors of adolescent dieting behavior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 195-205.
- Stice, E., Akutagawa, D., Gaggan, A., & Agras, W. S.(2000). Negative affect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dieting and binge ea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 218-229.
- Stice, E.(2001). Risk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R. H. Striegel-Moore & L. Smolak(Ed.). *Eating Disorders: Innovative Directions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Washington D. C.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1993). The social self in bulimia nervosa: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perceived fraudul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97-303.
- Sutandar-Pinnock, K., Blake, W. D., Carter, J. C., Olmsted, M. P., & Kaplan, A. S.(2003). Perfectionism in anorexia nervosa: a 6-24 month follow-up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3*, 225-229.
- Thomsen, S. R., McCoy, J. K., & Williams, M.(2001). Internalizing the impossible: Anorexic outpatients' experiences with women's beauty fashion magazines. *Eating Disorder*, *9*, 49-64.
- Vitousek, K. & Manke, F.(1994). Personality variables and disorders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37-147.
- Youssef, G., Plancherel, B., Laget, J., Corcos, M. Flament, M. F., & Halfon, O.(2004). Personality trait risk factors for attempted suicide among young women with eating disorders. *European Psychiatry* *19(3)*, 131-139.

ABSTRACT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on Eating Disorder Behavior

Kim, Jung-Nae · Ha, Jung-Hee*

This study was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on eating disorder behavior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t was to find relative influence when each sub-variableness was controlled of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ness. There were 374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revealed as follows. : (1) As male students made higher levels of maladaptive-perfectionism, they damaged more eating behavior when effects of other sub-dimension of perfectionism were controll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dimension of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behavior. (2) As male students made higher levels of social anxiety, they damaged more eating behavior and as female students made higher level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y damaged more eating behavior when effects of other sub-dimension of self-consciousness were controll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dimension of self-consciousness and eating disorder behavior. (3) We could find that independent effect of relation-variableness about eating disorder behavior. Namely, when effects of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we could find that maladaptive-perfectionism had impact on eating disorder behavior in male students,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ladaptive-perfectionism had impact on eating disorder behavior in female stude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suggested.

Key Words :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eating disorder behavior

투고일: 10월 27일, 심사일: 12월 6일, 심사완료일: 12월 18일

* Chungbuk University